HYUNDAI
MOTOR GROUP

2025.07.31

한미 무역합의 내용 및 영향 점검

경제, 주식시장, 산업별 영향

리서치센터

내일의 차이
현대차증권

Contents

① 한미 무역합의 주요 내용

② 경제 및 시장 영향

③ 산업별 영향

한미 무역 합의 주요 내용

- 트럼프가 언급한 한미 무역합의 주요 내용 1) 15% 관세율, 2)대미 투자 3,500억$, 3)미국산 에너지 구매 1,000억$, 4)시장 완전 개방 등
- 대통령실 정책 실장 브리핑 내용은 관세율과 투자 관련 내용은 트럼프 게시물과 유사,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자동차 15%, 반도체, 제약 등 품목별 관세는 최혜국 대우 적용 받을 것임을 시사
- 한편, 트럼프는 투자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밝혔으나 우리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했고,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 역시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추가로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힘

트럼프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한미 무역합의 내용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I am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agreed to a Full and Complete Trade Deal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e Deal is that South Korea will give to the United States $350 Billion Dollars for Investments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and selected by myself, as President. Additionally, South Korea will purchase $100 Billion Dollars of LNG, or other Energy products and, further, South Korea has agreed to invest a large sum of money for their Investment purposes. This sum will be announced within the next two weeks when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Lee Jae Myung, comes to the White House for a Bilateral Meeting. I would also like to congratulate the new President on his Electoral Success. It is also agreed that South Korea will be completely OPEN TO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y will accept American product including Cars and Trucks, Agriculture, etc. We have agreed to a Tariff for South Korea of 15%. America will not be charged a Tariff. I would like to thank the Trade Representatives who came forward today. It was an Honor to meet them, and talk about the Great Success of their Country!

2.28k ReTruths **10.1k** Likes Jul 31, 2025, 7:16 AM

주: TruthSocial, 현대차증권

한미 무역합의 관련 대통령 정책실장 브리핑 내용

협상 타결 결과	상호 관세 25% → 15%	- 8월 1일부터 부과 예정되었던 상호 관세(25%)가 인하됨 - 한국산 자동차 관세도 15%로 인하
추가 품목별 관세 조치 대응	반도체 · 의약품 등은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예정	- 다른 국가에 비해 불이익 없는 수준에서 합의 예정
대미 투자	총 3,500억 달러 규모 1)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 조성 2)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분야에 2,000억 달러 펀드 추가 조성	1)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생태계 전반 포괄 2) 펀드 산출물은 미 정부가 인수 책임
미국 상품 수입 확대	총 1000억 달러 규모	- 미국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 구매 약속
농축산물 시장 개방	쌀 ·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 없이 합의	- 미국 측의 개방 요구 있었으나 식량 안보 및 농업 민감성 감안하여 수용하지 않음
기대 효과	수출 환경 불확실성 제거, 주요국 대비 동등 또는 우월한 경쟁 조건 확보	- 통상 불확실성 완화로 기업 활동 안정성 확보 -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기대

자료: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현대차증권

한미 무역 합의 주요 내용: 주요국 합의 내용과 비교

- 한국 합의 내용은 일본, EU 합의 내용과 대체로 유사
- 품목별 관세 구체인 내용은 아직 없지만 경쟁국 대비 불리한 조건은 아닐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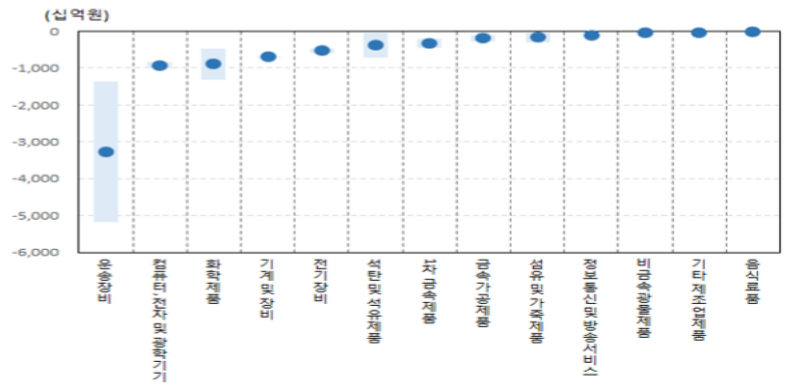
	한국	일본	EU
기본관세	15%	15%	15%
품목별 관세	- 자동차(15%), - 반도체, 의약품 (관세율 미정이나 최혜국 대우) - 철강·알루미늄, 구리 관세율은 기존과 동일	- 자동차(15%) - 철강·알루미늄(50% 추후 합의) - 기타품목(15%) - 반도체, 의약품(15% / 최저 관세 보장)	- 자동차(15%) - 철강·알루미늄(50% 유지) - 의약품, 반도체(15% / 최저 관세 보장)
대미 투자	- 총 3,500억 달러 -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 조성 -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분야 2,000억 달러 펀드 추가 조성 - [미국측 주장]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 수익 중 90%는 미국이 가져감	- 대미 투자 펀드 5,500억 달러 - [미국측 주장]알래스카 LNG 조인트벤처 투자` - [미국측 주장] 투자펀드 수익 중 90%는 미국이 가져감	- 미국에 신규 6,000억 달러 투자
미국 상품 수입 확대	- 총 1,000억 달러(미국산 LNG 등) 구매	- 미국산 쌀 수입 75% 확대 및 80억 달러 규모 농산물 수입 -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 -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산 장비 추가 도입	- 미국산 에너지(7500억 달러) 구매 -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EU측: 합의한적 x)
비관세 장벽	- [트럼프 입장] 자동차, 트럭,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 - [대통령실 입장] 농축산물 개방하지 않음	-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일본 독자 안전기준 검사 폐지 등 규제 완화 - 일본은 미국산 쌀 증대를 위해 기존 수입 쿼터 활용 확대 (국내 농업 피해는 최소화)	- 미국산 자동차 및 농산물에 대한 각종 표준·인증 장벽을 완화 합의
기타			- 상호 무관세 품목(항공기 및 관련 부품과 특정 화학 제품, 특정 복제약(generics),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 및 천연자원과 핵심 원자재)

주: 정부 보도자료, 언론종합, 현대차증권

경제: 국내 수출과 GDP 영향

- 관세율 15% 확정으로 인한 수출 감소 불가피하나 합의 이전 실효관세율 수준이 15% 내외였음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전망
- 자동차 수출은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 폭이 가장 큰 품목이나 이번 합의로 품목별 관세 25%에서 15%로 관세율이 인하된 점은 긍정적
- 관세율 15% 부과 후 12개월 누적 연간 국내 수출 감소 폭은 약 9%에 달할 것으로 추정(IBK 경제연구실), GDP는 관세율 15%하에서 0.3~0.5% 감소할 것으로 추정, 무역정책 불확실성 충격(-0.5%) 포함하면 약 0.8~1.0% GDP 감소
- 다만, 당사 포함 주요기관의 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0.8~1.0% 수준)는 15% 수준의 관세율과 정책 불확실성 충격 영향이 이미 반영돼 있어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

관세율 10% 인상시 품목별 GDP 감소 유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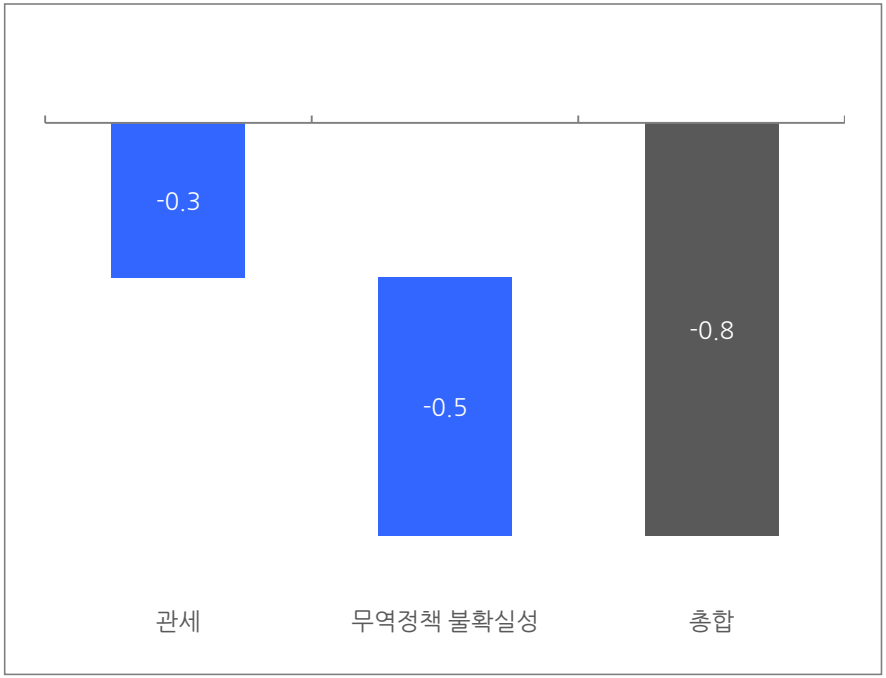


미국 수입수요의 가격 탄력성

	석유제품	화공품	금속	일반기계	전자제품	운송장비
VAR 1)	-0.5	-0.8	-1.3	-0.5	-1.3	-1.2
Ghodsi et al.(2016) 2)	-1.2	-0.9	-0.9	-0.9	-0.8	-0.9
김정현 외(2024) 3)	-0.3 ~ -0.7	-0.3 ~ -1.1	-1.0 ~ -1.8	-1.0 ~ -1.7	-0.9 ~ -1.7	-0.6 ~ -1.2

주: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관세발 GDP 감소 불가피하나 기존 성장률 전망에 이미 반영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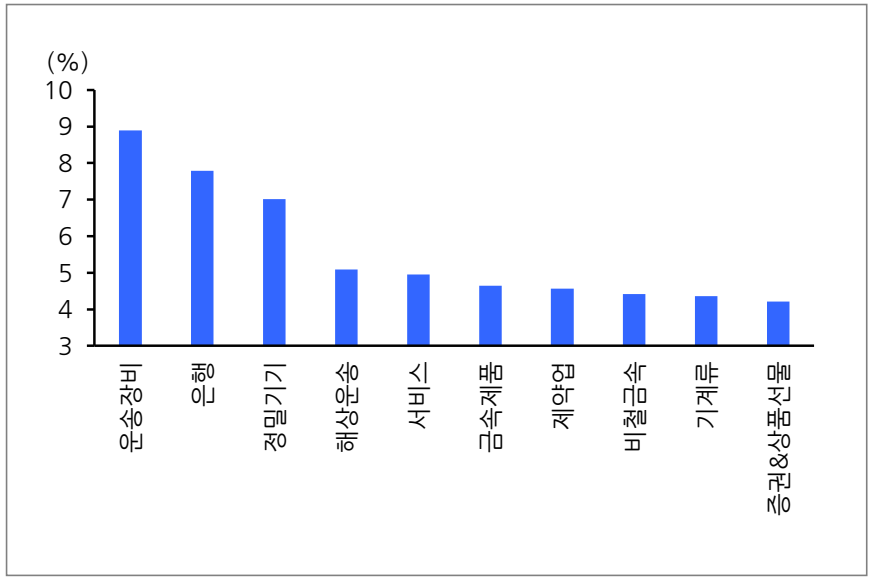


주: 단위는 %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현대차증권

주식시장: 관세 인하 혜택 업종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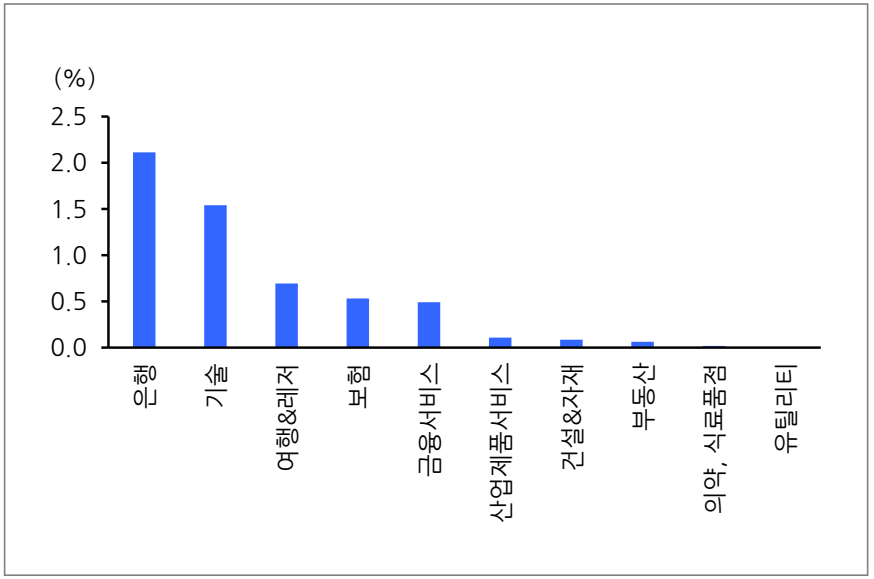
- 관세 협상으로 우호적인 업종은 크게 2종류. (1) 관세 인하 혜택 업종, (2) 대미 투자 확대 업종
- (1) 기존 관세보다 낮아진 업종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 한-미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15%로 인하
- 다만 15% 관세도 이익에 분명 악영향 있고, 주요 자동차 생산 국가(일본, EU)가 동일하게 부과 받는 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 회복 수준으로 판단
- 실제 일본에서는 무역 협상 타결 이후 자동차 업체들 주가 강세 후 일부 조정. 유럽 증시에서도 무역 협상 타결 이후 자동차 업체 주가 부진
- 관세 인하로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은행/금융 업종 주목. 무역 합의 이후 일본과 유럽 증시에서 은행/금융 업종이 강세
- 여행/레저/서비스와 같이 경기와 민감한 업종도 강세. 결국 관세 인하는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시키는 요인

일본 무역 합의(7/23 오전) 이후 3일간 성과 상위 10개 업종



주1: TOPIX 하위 업종 기준
주2: 7월 23일~7월 25일 기간 수익률
자료: 블룸버그, 현대차증권

EU 무역 합의 이후 3일간 성과 상위 10개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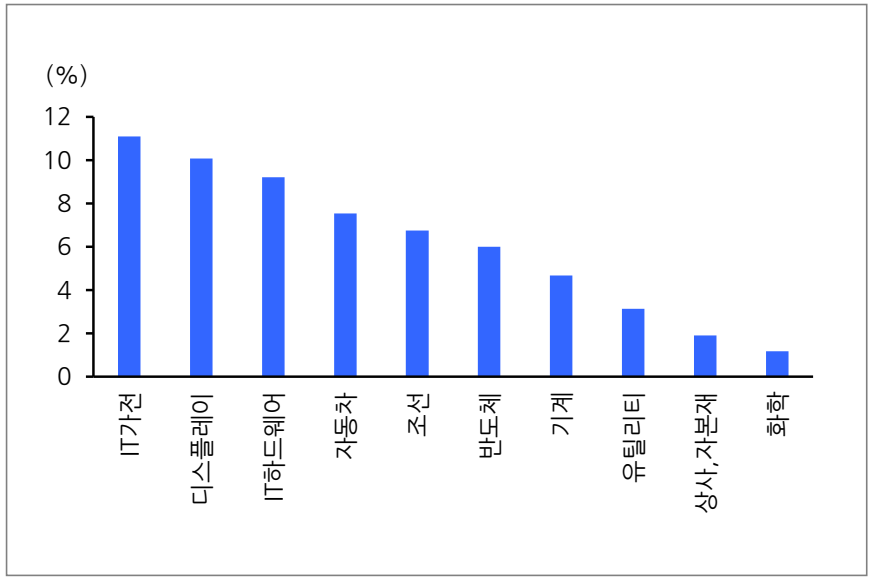


주1: STOXX600 하위 업종 기준
주2: 7월 28일~7월 30일 기간 수익률
자료: 블룸버그, 현대차증권

주식시장: 대미 투자 확대 업종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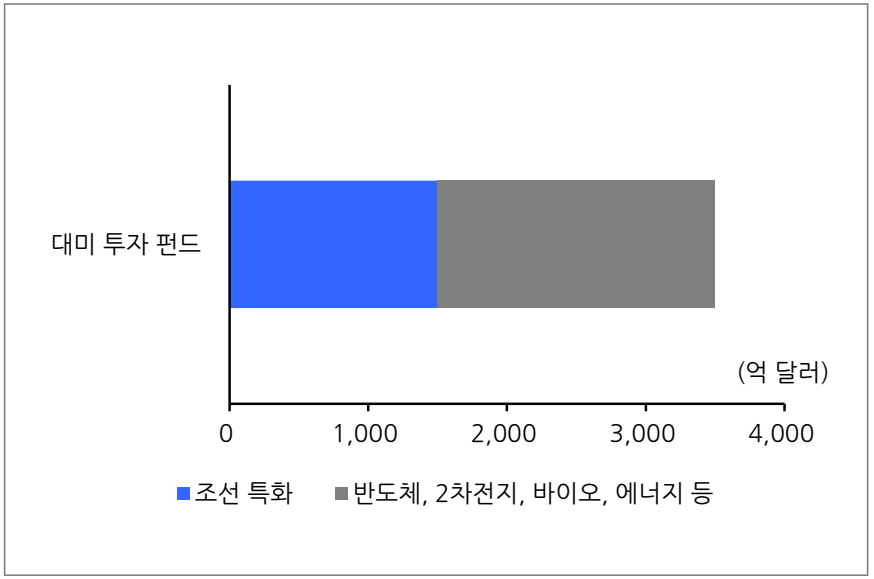
- 장기적으로는 대미 투자 확대 업종에 관심. 이번 한-미 무역 협상에서 대미 투자는 일본과 유사하게 펀드 구상을 발표
-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특화 펀드로 선박 설계 · 건조, 기자재, MRO 등 조선의 전 생태계 구축 전망
- 2,000억 달러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한국의 강점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돕는 역할을 할 전망
- 펀드의 직접 출자는 매우 적을 것이고, 대부분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을 통한 대출과 보증 형식이 주를 이룰 것
- 국내 조선,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에너지 기업들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진행 중 또는 예정에 있는 상황에서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은 빠른 미국 진출과 미국 시장 접근성 강화, 금융 비용 절감 등 관련 기업들에게 혜택으로 작용

미일 무역 합의(7/23 오전) 이후 코스피 수익률 상위 업종



주1: WICS26 업종 기준 7월 23일~7월 30일 기간 수익률 상위 10개 업종
주2: 2차전지는 IT가전 내 포함
자료: 퀀티와이즈, 현대차증권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펀드 규모 및 업종



자료: 대통령실, 현대차증권

산업별: 한미 관세 합의안 발표에 따른 국내 업종 코멘트

업종	영향	업종별 영향 요약
자동차	부정	- 현대, 기아는 각각 50만대 내외 관세 노출(미국 신공장 가동 고려하지 않음)되어 관세 부과 1% 당 양사 각각 연 1,500억원 내외의 이익 감소 추정 - 기존 관세 환경대비 1.5조원의 영업이익 눈높이가 높아짐. 인센티브 하락, 가격인상, 원가 절감, 미국 신공장 가동 상승에 띠른 수입 축소로 관세영향 상쇄 가능 - 자동차 품목별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짐에 따라 부정적인 요소 완화, 우려로 인한 주가 할인 요소 크게 완화
반도체	부정	- 반도체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8% 정도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은 Tesla향 Logic Chip, SSD/Flash Card 등임. 금번 상호관세 수준으로 반도체 품목 관세가 확정될 경우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저항을 줄이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중심으로 15%내외의 가격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국 향 제품의 수익성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
철강	중립	-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는 기존 50%(상호 관세 적용 안됨)를 유지하는 것으로 언급하여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영향은 중립적 - 미국은 일본, EU와 관세 협상에서도 철강에 대한 관세는 기존 50%를 유지한 바 있음(미국 측 발표 기준)
제약	중립	- 미국 수출 비중은 약 18~20%, 관세 우려로 연초부터 약 수출 비중이 50%까지 상승. 2년 이상 재고 비축으로 선제적 대응 중. - 15% 관세 부과에 의약품도 직접 영향. 국내 섹터 내 주력산업인 CDMO, 바이오시밀러 제품, 희귀의약품 등 국내 주력 생산 제품들의 관세 영향으로 인한 가격 변동과 수익 악화가 예상. 다만 품목 관세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주가 측면은 제한적이며, 기업들은 대응책을 마련 중. - 국내 기업들은 각자의 수익 모델에 맞춘 대응책을 강구 중. 7월 29일 셀트리온은 선제대응으로 미국 내 생산설비 매입을 타진 중임을 발표. 신약 개발 기업들의 경우 기본적인 원가율이 높지 않고 약가 조정의 난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각 기업이 원료 생산을 미국 내에서 진행하거나 원료를 주사기 형태로 봉입하는 DP 충진을 미국 내에서 진행하여 관세 회피 전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에너지	중립	- 미국산 LNG 등 에너지 제품 $1,000억 규모 수입 가능성. 총 수입 기간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연간 수입 물량 확인 필요. 우리나라 LNG 수입물량은 24년 $300억 규모이며 미국산 비중은 10% 내외. 일반적인 LNG 계약은 20년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50억 규모 수입 가정시, 수입 국가내 비중 조정 정도에 그칠 것.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조선	긍정	- 미국은 한국 외에 국내 조선업 재건을 위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로 상호관세 영향은 제한적 - 이번 무역협상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에 1,5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한미 조선업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 또한, 글로벌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들이 재개되고 있어 LNG선 수요 또한 증가하여 국내조선업체 수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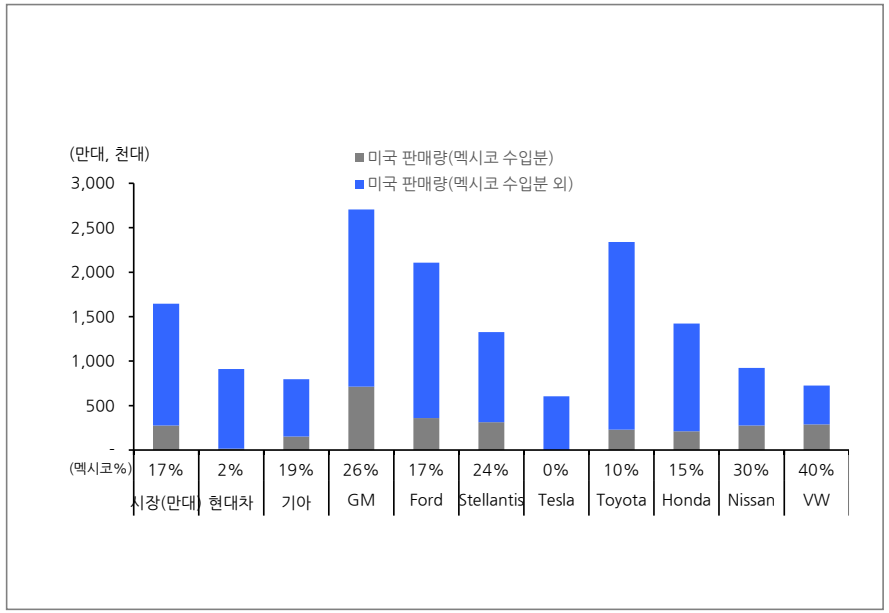
산업별: 한미 관세 합의안 발표에 따른 국내 업종 코멘트

업종	영향	업종별 영향 요약
방산	중립	- 방산은 한국 무기체계가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가 없으며, 기본적으로 방산 무기 수요처는 군과 정부이므로 관세 부과대상이 아님. 향후 실적 및 수주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 이번에 발표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 협력에 활용되며 미 군함 건조, MRO 등 해양방산 부문에 대한 협력에 강화될 전망
전기전자/가전	부정(가전)	- 가전의 경우 북미 향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 스윙생산, 부품 원가 절감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북미 투자 역시 가능한 옵션. 국내 전기전자/디스플레이 업종은 주로 국내, 혹은 동남아 지역에 위치하며 완제품 역시 중국, 동남아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번 관세 15%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미국 직수출은 거의 없음)
건설	중립	- 관세 합의에 따른 관련 섹터 리스크 완화에 따라 건설업종 차익실현 후 해당 섹터로의 수급 유출 가능 - 업종 펀더멘털 및 기대감 고려 시 하반기 중 주가의 지속적인 우상향을 전망하나 매수세 이동에 따른 일시적인 주가 조정 가능
화장품	중립	- 화장품: 관세 15% 부과 시 미국 화장품 Q(판매량)에는 크게 영향 없음. 오히려 트럼프 관세 부과 전 사재기 수요가 생겨날 정도 - 브랜드 영향 정도: ① 역직구 브랜드: 판매가 *15% 부과 > ② 벤더 사용 브랜드: 벤더 공급가율 *15% > ③미국 법인 보유 브랜드: 공급가율*15% - ODM(긍정적): ODM사들의 미국 법인 On-Shore 수요 흡수 가능성 확대
지주회사	중립	- 추가 주가 상승 요인 뚜렷한 종목 중심 선별적 접근 추천 - 상반기 드라마틱한 KOSPI 대비 초과상승의 근간은 주주환원 기대, NAV 증가 외에도 관세 불확실성의 반사 수혜로 판단. 시장 이익 불확실성으로 자산가치대비 저평가된 지주 종목 매력 확대. 1) NAV에 관세 합의안 발표 수혜업종 지분 보유, 2) 추가 주주환원 확대 기대 있는 종목 선호
금융/은행	중립	- 추가 PBR 상향 여력 분명하나 시장 내 상대적 매력도 변화를 주시하며 대응 속도 결정 추천 - 자사주 매입소각 지속, PBR 정상화 이후 배당 지급 확대 기대, 총주주환원율 50% 상회 등 PBR 상향 여력 분명. 다만 상반기 가파른 PBR 상승의 기저가 있어 관세 불확실성 완화된 업종들에 시장 관심 집중 시 속도 조절 가능성 있음

[자동차] 15% 관세 부과에 따른 이익 감소액 축소

- 현대, 기아는 각각 50만대 내외 관세 노출(미국 신공장 가동 고려하지 않음)되어 관세 부과 1% 당 양사 각각 연 1,500억원 내외의 이익 감소 추정
- 기존 관세 환경대비 1.5조원의 영업이익 눈높이가 높아짐. 인센티브 하락, 가격인상, 원가 절감, 미국 신공장 가동 상승에 띠른 수입 축소로 관세영향 상쇄 가능
- Post-Tariff 국면에서의 전략적 대응으로 주가 회복 기대. GM과 협업 구체화, 주주 환원 정책의 재확인,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틱스 사업 확대에 대한 전략적 구체화가 관건
- 자동차 품목별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짐에 따라 우려로 인한 주가 할인 요소 크게 완화

브랜드 별 미국 판매량과 멕시코 수입량 (2024년)



자료: Marklines, 현대차증권

현대차-GM 포괄적 협력 위한 M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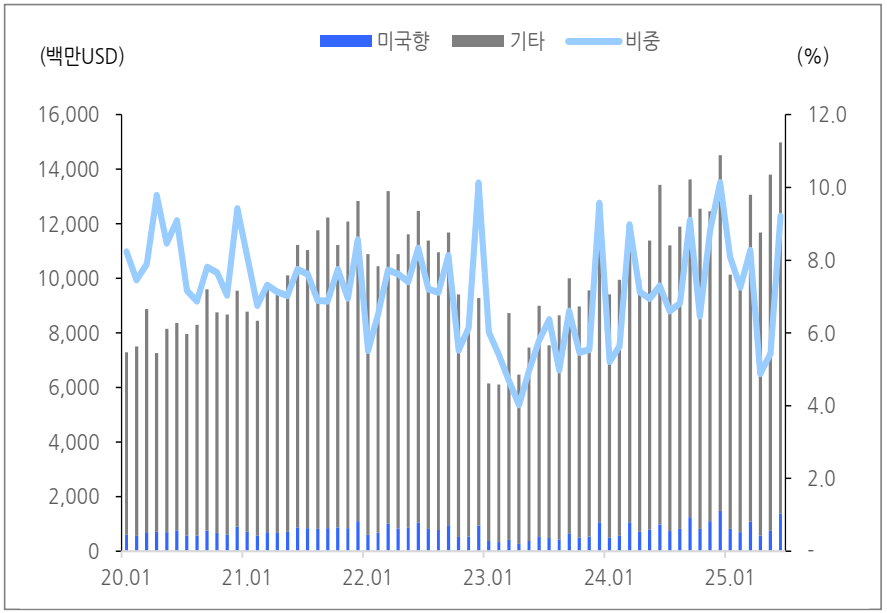


자료: 언론, 현대차증권

[반도체]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수출 제품 가격 인하 예상

- 한국 반도체 수출액에서 미국 수출 비중은 2024년 기준 8%였으며 해당 제품 가격을 15% 인하할 경우 전체 반도체 수출액은 1.2% 수준
- FTA로 인해 지금까지 미국으로 가는 반도체 제품은 무관세였지만 금번 상호관세율 15% 부과 (반도체 품목별 관세도 유사한 수준 예상)로 인해 미국 수출 제품 가격 상승을 줄이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15% 내외의 가격 인하 예상 / Tesla 등 Logic Chip 고객사향 제품들의 경우 추후 Foundry 가격 협상 예상 →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
- 삼성전자는 Texas Taylor시에 USD 170억을 투자하여 신규 Foundry Fab 신축 / 금번 Tesla AI6 Chip 수주를 통해 2nm 반도체 공정 장비 투자 확대 예상

한국 반도체 수출액에서 미국 수출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삼성전자 미국 Taylor F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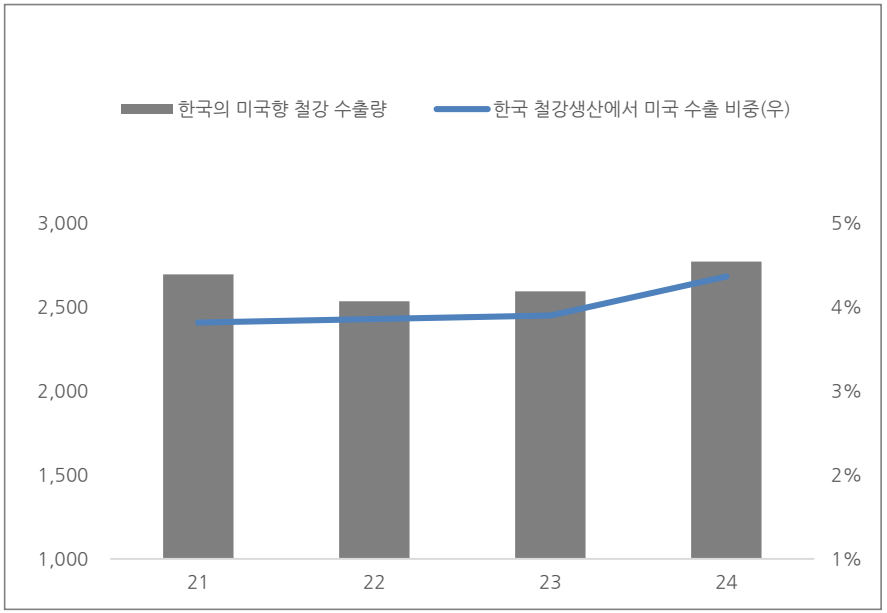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증권

[철강] 미국의 철강 관세는 변동 없어 중립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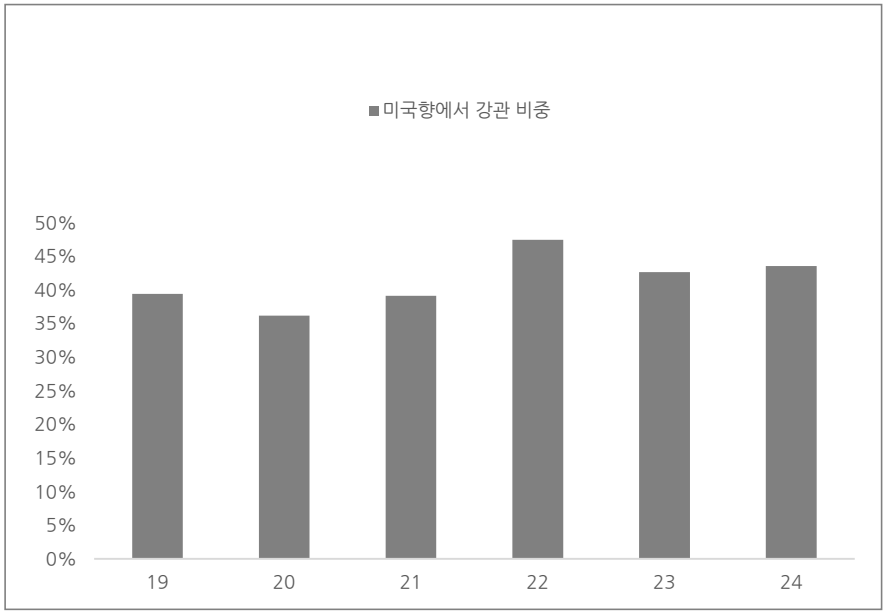
- 미국의 철강 관세는 기존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한미 관세 협상 영향은 중립적(일본, EU와도 철강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
- 한국 철강 생산에서 미국 향 수출 비중은 4%에 불과하고 국내 대형 철강업체들의 미국 향 비중은 2% 내외로 크지 않음
- 다만 한국이 미국 LNG 개발에 참여한다면 국내 강관업체들의 투자심리는 개선될 수 있음(한국 강관 생산의 27%가 미국 향 수출)

한국 철강 생산량에서 미국 향 수출 비중 추이



자료: 한국철강협회, 현대차증권

미국 향 수출에서 강관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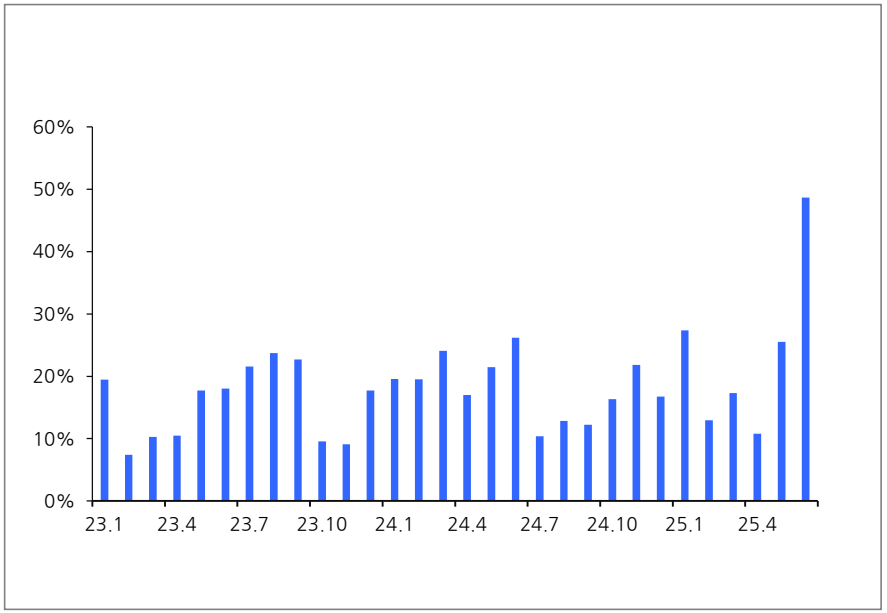


자료: 한국철강협회, 현대차증권

[제약/바이오] 15%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수출 제품 가격 인하 예상

- 미국 수출 비중은 약 18~20%, 관세 우려로 연초부터 약 수출 비중이 50%까지 상승. 2년 이상 재고 비축으로 선제적 대응 중.
- 15% 관세 부과에 의약품도 직접 영향. 국내 섹터 내 주력산업인 CDMO, 바이오시밀러 제품, 희귀의약품 등 국내 주력 생산 제품들의 관세 영향으로 인한 가격 변동과 수익 악화가 예상. 다만 품목관세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주가적 측면은 제한적이며, 기업들은 대응책을 마련 중.
- 국내 기업들은 각자의 수익 모델에 맞춘 대응책을 강구 중. 7월 29일 셀트리온은 선제대응으로 미국 내 생산설비 매입을 타진 중임을 발표. 신약 개발 기업들의 경우 기본적인 원가율이 높지 않고 약가 조정의 난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각 기업이 원료 생산을 미국 내에서 진행하거나 원료를 주사기 형태로 봉입하는 DP 충진을 미국 내에서 진행하여 관세 회피 전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 의약품 수출액에서 미국 수출 비중 추이



자료: 무역협회, 현대차증권

셀트리온 공시(미국 CMO설비 투자 우선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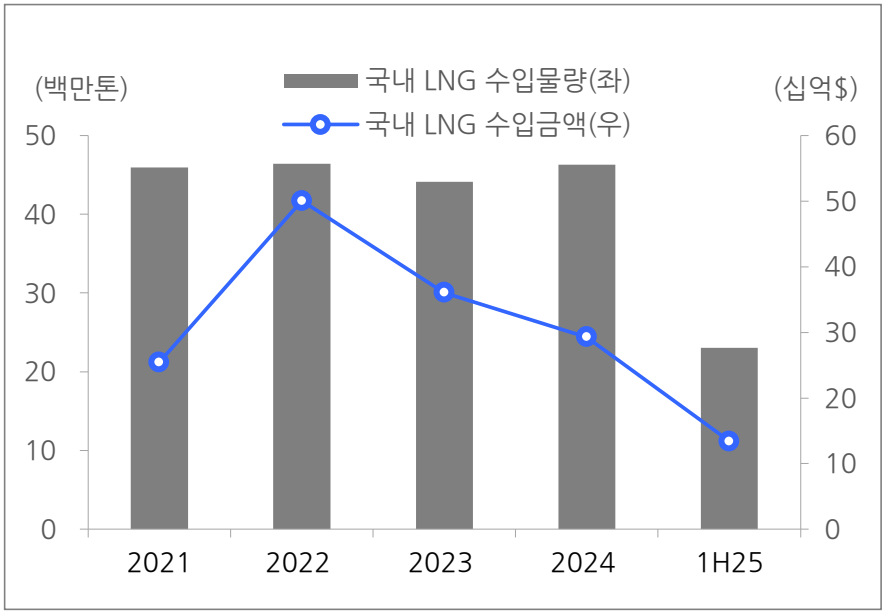
공시일자	2025-07-29
제목	미국 원료의약품 시설 보유한 기업 인수에 대한 독점 교섭 확약 체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주요 내용	1) 미국향 수출 의약품 관세 리스크 해소, 2) 미국 현지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 목적으로 미국 원료의약품 cGMP 생산 시설을 보유한 기업 인수 검토를 진행해왔으며, 2025년 7월 29일 미공개 글로벌 기업과 현지 생산 시설을 보유한 기업 인수에 대한 독점 교섭 확약 체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당사는 피인수 기업이 보유한 미국 현지 공장에 대한 확정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할 예정이며, 확정실사 결과에 따라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
향후 계획	1) 인수 후 증설 통해 생산 capacity 확대 및 원가 효율화 추진 2) 기존 생산제품 CMO로 즉시 수익 창출 3) 현지공장 내 R&D 기능 강화 통해 선진기술 도입 시너지 극대화

자료: 셀트리온, 현대차증권

[에너지]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산업내 영향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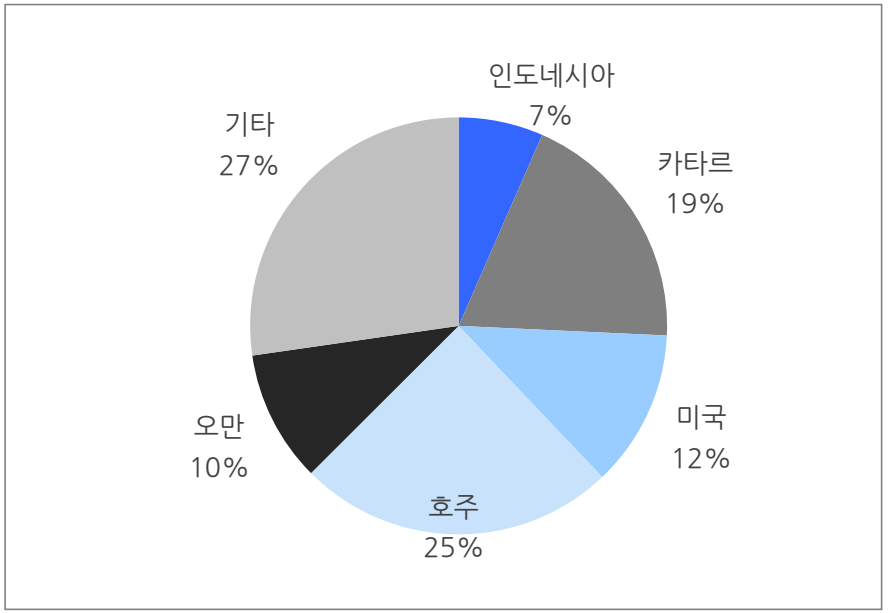
- 미국산 LNG 수입 $1,000억. 수입 기간이 아직 나오지 않아 연간 수입 물량은 확인 필요
- 우리나라 2024년 LNG 수입물량 $300억 수준. 미국은 10% 내외
- 일반적인 LNG 계약은 20년 내외. 이를 감안할 시 연간 $50억 규모를 수입한다면, 수입국내 비중 조정 정도로 판단. 이에 따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국내 LNG 수입 추이



자료: KITA, 현대차증권

2024년 국내 LNG 수입 국가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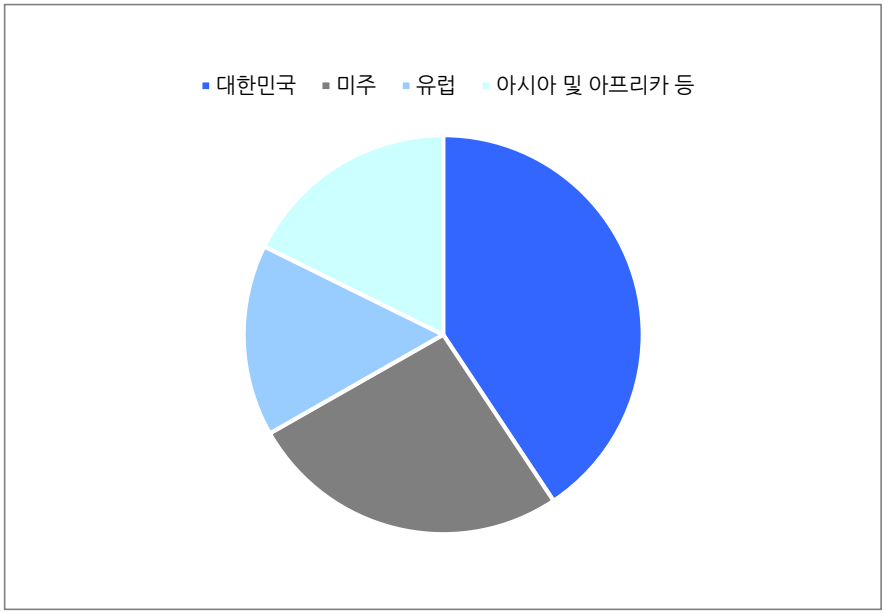


자료: KITA, 현대차증권

[전기전자/가전] 가전은 관세 영향으로 인해 수요 심리 위축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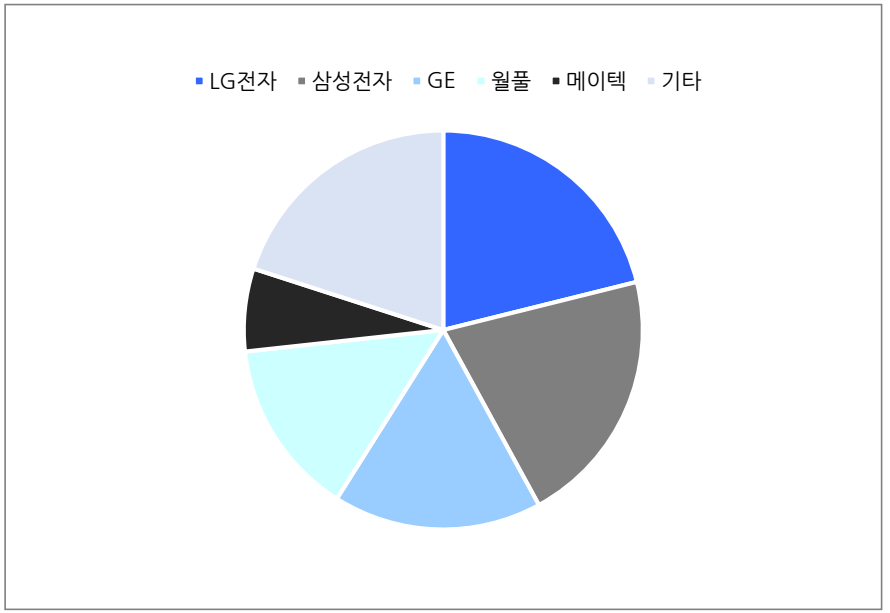
- 가전의 경우 북미향 매출 비중(LG전자 약 26%)이 다소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음. 특히 가전의 주요 원재료인 철강 관세가 유지된다고 하면 어려운 상황은 지속될 것.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윙생산, 원가 절감 등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고 북미 투자 역시 검토 하나의 옵션. 가전 업체의 경우 관세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경우 소비 심리 위축과 더불어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국내 전기전자/디스플레이 업종은 주로 국내, 혹은 동남아 지역에 위치하며 완제품 공장 역시 미국이 아닌 중국, 동남아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번 관세 15%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미국 직수출은 거의 없음). 국내의 Apple Supply-Chain은 iPhone 가격 소폭 인상(3%-5% 예상)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부품(Camera, Display) 가격 인하는 있을 것. 중요한 것은 한미 상호관세보다 중국, 동남아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될 것

LG전자 국가별 매출 비중



자료: LG전자, 현대차증권

미국 내 가전 점유율



자료: 현대차증권

[조선] 관세영향 제한적. 조선업 협력 가속화, LNG선 수요 증가 전망

- 미국은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는 한국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로 관세영향은 제한적임
- 이번 한미 무역 협상에서 조선이 핵심 협상카드로 부상되며 정부에서 'MASGA'라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으며 협상 결과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중 1,500억 달러을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운용된다고 발표. 국내조선업체들의 미국 조선업 진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은 한미 조선업 협력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됨
- 유럽,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이번 관세협상을 통해 미국 LNG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 글로벌 미국 LNG 수입 확대에 따라 벤처글로벌 CP2 LNG 수출 터미널 건설이 공식 승인되는 등 미국 LNG 프로젝트들이 재개되고 있음. 이에 따른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 수요 증가에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됨

한미 조선업 협력 현황

업체	협력 파트너	협력 내용 및 현황
한화 그룹	필리조선소	- 2024년 말 인수 완료, 약 1억달러 투자하며 한화오션과 건조 협력체계 구축
		- 2025년 미국서 LNG운반선 첫 수주(3,480억원 규모)
		- 선박 생산성 및 역량 강화 위해 스마트야드, VR 훈련 등 시스템 도입
		- 현지 인력·한국 전문가 교차 파견
한화 그룹	오스탈	- 오스탈은 호주 본사, 美 모바일·샌디에이고 등지에 조선소 보유
		- 미국 내 소형 수상함 시장 점유율은 40~60%로 1위
		- 한화, 오스탈 지분 9.9%→19.9% 확대 중(美 승인, 호주 승인 대기)
		- 한국-호주-미국 해양방산 삼각 협력 추진
HD현대중공업	헌팅턴잉걸스	-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잉걸스)에 합작투자 및 기술협력
		- 2025년 4월 '함정 생산성 향상·첨단 조선기술 MOU' 체결

자료: 현대차증권

EU, 일본, 한국 LNG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 관련 대미 협상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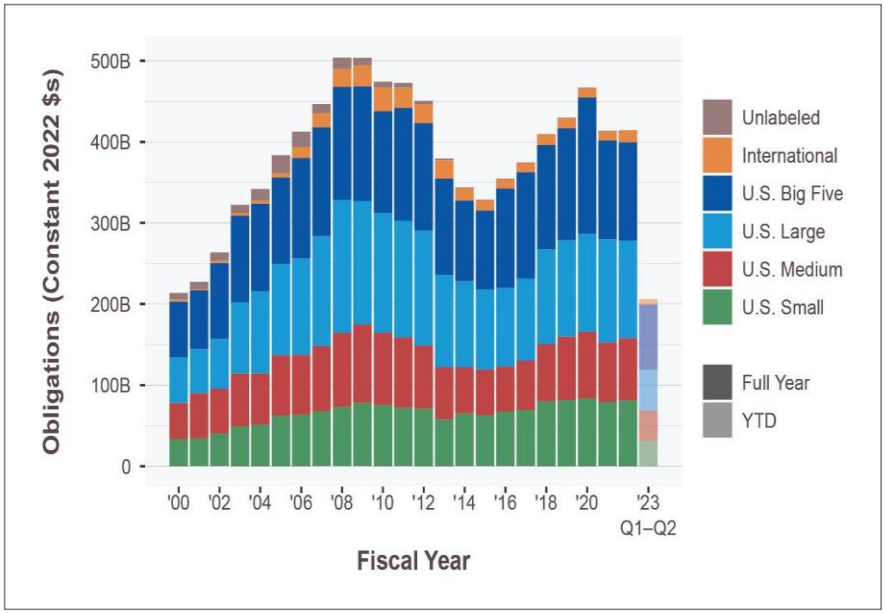
	미국과의 무역협상 내용
EU	- 총 7,5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3년 동안 2,500억달러 씩 분할 구매 예정
	러시아 화석연료 대체 위해 석유, LNG, 핵연료 구매.
일본	-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 합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총사업비 약 440억달러 추산, 일본이 제시한 미국 투자 금액 5,500억달러 중 일부 사용 예상
	- 트럼프, 곧 미국산 청청 LNG 대규모 수입할 것이라고 언급
한국	- 향후 3년 반에 걸쳐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등 미국산 에너지 제품 구매하기로 합의

자료: 현대차증권

[방산] 상호관세 영향은 제한적. 해양방산부문 협력 강화 전망

- 국내 방산업종의 주요 수출 품목(K9, 천무, K2, 천궁-II, FA-50 등)들은 대부분 유럽, 중동시장에 집중되어 있음
- 방산은 한국 무기체계가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가 없으며, 기본적으로 방산 무기 수요처는 군과 정부이므로 관세 부과대상이 아님. 향후 실적 및 수주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
-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중 1,500억 달러을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운용되며 한국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뒷받침 한다고 발표. 미 군함 건조, MRO 등 해양방산부문에 대한 국내업체들과의 협력이 강화될 전망

공급처별 미 국방부 방산 구매 계약금액 추이



자료: CSIS

한화 필리조선소 전경



자료: 필리조선소, 현대차증권

참조. 미국과의 경제 관계: 교역 및 FDI

-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 대상국
- 미국은 한국의 최대 직접투자 종착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4번째로 큰 FDI투자자(23년 기준 미 제조업 신규 FDI총액의 약 60%를 한국이 투자)
- 대미 수출 중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품목은 ①자동차, ②반도체, ③자동차 부품, ④석유제품, ⑤컴퓨터(산업통상자원부 무역분류 코드 기준)
- 대미 수입 5대 품목은 ①원유, ②천연가스, ③반도체장비, ④전자직접회로, ⑤자동차, 협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쇠고기는 수입금액 기준 8위

대미 수출 10대 품목 (단위: 억 달러, 전년 대비%)

순위	HS 4단위	품목명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8703	자동차	157	0.1	171	8.9	222	29.7	322	44.6	347	7.9
2	8473	컴퓨터 부품·부속품	57	37.7	72	24.8	65	-8.7	38	-41.9	82	116.8
3	8708	차량용 부품·부속품	47	-11.3	59	25	70	17.8	70	0.0	71	1.2
4	8523	비휘발성 기억장치	41	156.1	51	25.1	58	12.8	16	-71.9	54	236.0
5	2710	석유제품	23	-46.4	47	104.1	62	30.3	57	-8.5	51	-9.6
6	8507	배터리	12	30.4	27	123.9	41	50	48	16.7	39	-19.2
7	8479	기타 기계류	6	20.5	5	-4.9	9	72.2	19	100.6	26	39.2
8	8418	냉장고	17	29	25	50.4	20	-19.6	22	6.7	19	-14.1
9	8504	변압기	4	27.6	5	22	8	47.9	14	81.9	18	31.0
10	8542	전자집적회로	12	-4.4	14	17.9	13	-9.3	7	-44.1	16	129.5
전품목			741	1.1	959	29.4	1,098	14.5	1,157	5.4	1,278	10.4

주: HS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현대차증권

대미 수입 10대 품목 (단위: 억 달러, 전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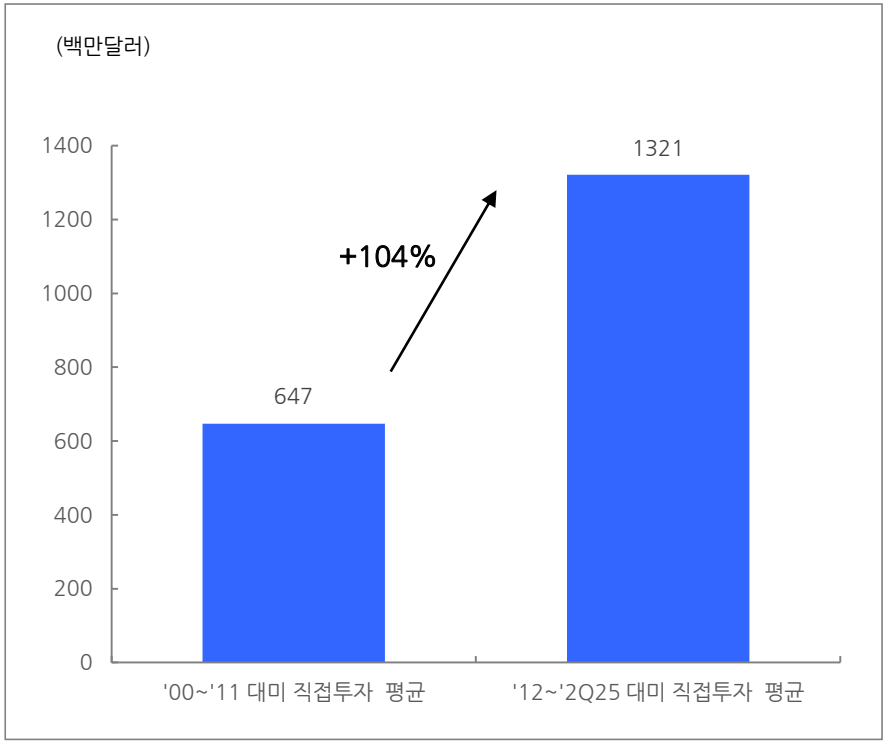
순위	HS 4단위	품목명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2709	원유	54	-40.0	84	55.8	140	67.0	123	-12.2	142	15.7
2	2711	천연가스 등	50	-6.0	96	90.7	120	25.2	86	-28.3	76	-12.2
3	8486	반도체 장비	42	50.0	60	43.8	53	-12.0	39	-26.1	37	-5.6
4	8542	전자집적회로	31	-5.9	31	1.2	25	-19.3	25	-0.4	28	14.2
5	8703	자동차	24	31.6	35	47.8	38	7.5	31	-17.6	21	-33.2
6	8411	터보제트	11	3.8	10	-10.6	13	31.0	24	76.2	19	-19.7
7	8802	기타 항공기	13	-35.7	13	-1.2	12	-4.9	8	-31.7	16	92.2
8	0202	쇠고기	11	-8.0	11	3.2	16	43.4	12	-25.5	12	1.5
9	2106	조제식료품	11	9.0	12	12.1	12	-3.9	11	-4.7	11	-6.8
10	9031	검사용기기	6	9.0	10	55.5	11	13.0	11	-1.7	9	-13.7
전품목			575	-7.1	732	27.3	818	11.7	713	-12.9	721	1.2

주: HS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현대차증권

참조. 과거 한미 경제 협력 주요 이벤트: FTA는 역사속 뒤안길로

-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품목 수 및 금액 기준으로 각각 전체 수입의 99.8% 및 99.1% 수준에 이르는 상품에 대한 대미국 관세를 최종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은 품목 수 및 금액 기준 모두 100% 상품에 대한 대한국 관세를 최종 철폐하는데 합의
-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약 104% 증가('00~'11 대비 `12~2Q25)
- 이번 한미 무역 관세 합의로 한미 FTA는 사실상 효력 상실

한미 FTA 전후 대미 직접투자



주: Bloomberg, 현대차증권

한미 FTA 타임라인

일시	일정	비고
2003.08	정부 'FTA 추진 로드맵 마련	
2004.08	USTR, 한미 FTA에 대한 관심 표명	
2004.11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사전실무 점검회의 개최 합의	APEC
2005.09	미 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선정	
2006.02.03	한미 FTA 추진 발표	워싱턴 미 상원의사당
2007.04.02	합상 타결	통상장관회의 개최
2007.06.30	서명	워싱턴 D.C.
2010.12.03	추가 협상 타결	통상장관회의 개피
2011.02.10	추가 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2011.11.22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한미 FTA 비준안을 포함한 14개 이행법안 등 모든 법안 표결 종료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 참석,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
2012.03.15	발효	
2017.08.22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미국 USTR,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따름
2019.01.01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3차에 걸친 개정 협상 개최 (2018.1~3)

자료: 한미 FTA, 현대차증권

Compliance Note

▶ Compliance Not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